

# 캄보디아 보고서

정치외교학과15 김하은

## I. 서론

2015년 2학기 동계 해외체험으로 아주대 국제학부에서 캄보디아를 다녀왔다. 방문일은 2015년 12월 20일부터 12월 24일로 총 3박 5일이며 캄보디아의 수도 프놈펜과 앙코르와트가 있는 도시 씨엠립을 방문하였다. 일정은 프놈펜에서 먼저 진행된 다음 씨엠립으로 이동하여 진행되었다. 프놈펜에서 첫째 날에는 Puthisastra 대학을 방문하여 캄보디아 학생들과 같이 수업을 듣고 토의하는 시간을 가진 것이었고 Killing Field를 방문하여 캄보디아의 역사를 알아보는 것이었다. 둘째 날에는 왕궁과 왓프놈을 방문하였고 마지막 날에는 앙코르와트와 앙코르와트 일대의 앙코르 톰 등을 관광하였다. 이번 해외체험의 목적은 다양한 유적지와 관광지를 둘러보면서 캄보디아의 문화를 직접 체험하고 캄보디아의 모습을 통해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상황에 대해 생각해보고 또한 코트라를 방문하는 것을 통해 캄보디아의 부상하고 있는 경제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기 위함이다.

## II. 본론

### 1. 캄보디아에 도착하다

5시간 반을 비행하고 착륙할 때 즈음에 나는 비행기 창을 통해 밖을 내다보았다. 밤이라 어두컴컴한 하늘에서 내려다본 캄보디아는 무척이나 조용해보였다. 주황색 불빛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었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캄보디아는 신비로운 첫인상을 내게 남겼다. 비행기에서 내려 비자를 받고 짐을 챙겨 숙소로 이동하면서 가이드 아저씨의 설명을 들으면서 간간히 버스 창밖을 내다보았다. 밖은 위에서 본 것처럼 매우 조용했지만 내게는 익숙한 한국을 비롯한 외국 간판들과 캄보디아 건물들이 내게 마냥 신기하게만 느껴졌다.

### 2. 캄보디아의 아침 풍경

아침에 숙소에서 보이는 메콩강은 매우 평화로워 보였다. 캄보디아의 아침은 밤과 다른 느낌을 주었다. 아침이 되자 많은 오토바이들이 나타났고 오토바이 소리들과 사람들의 소리가 뒤섞여 들려왔다. 버스의 창에 선탠지가 씌워져 있지 않아서 밖에서 안을 쉽게 들여다볼 수가 있었다. 창밖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많은 캄보디아 사람들과 눈을 마주쳤는지 모른다. 캄보디아 사람들은 우리를 신기하게 쳐다보기도 하고 우리를 마주칠 때마다 미소로 화답하거나 손을 흔들어주기도 하였다. 나는 그들의 미소 안에서 순수함을 보았다.

### 3. 첫째날 일정

#### ① Puthisastra 대학 방문

캄보디아 프놈펜에서의 첫 번째 일정은 Puthisastra 대학을 방문하는 것이었다. Puthisastra 대학은 작은 규모였지만 안의 시설은 무척이나 좋았다. 특히 도서관 시설이 매우 좋았다. 그리고 캄보디아 대학 관계자들과 우리학교 교수님과 학생들이 한 자리에 모였을 때 우리는 대학 관계자들의 대학 소개를 들을 수 있었다. 생각보다 커리큘럼이 잘 되어있었다. 또한 열심히 하려는 학생들이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는 캄보디아 Puthisastra 대학 이곳저곳을 살펴보면서 그룹을 지어 열심히 책을 보거나 토론하는 많은 캄보디아 학생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대학생이 교복을 입고 있는 것도 신기하였다. 우리는 캄보디아 경제에 관한 수업 하나를 참관하였다. 캄보디아 경제 상황에 대해 캄보디아 대학생들과 토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내 옆자리에 앉은 캄보디아 학생이 나에게 캄보디아의 경제상황에 대해 자세하게 알려주었다. 캄보디아는 젊은 인력은 많지만 고급인력이 부족하다고 하였다. 또한 캄보디아는 제조업보다는 관광산업이 더 발달되어있다고 말해주었다. 비록 캄보디아의 경제상황에 대해서 자세하게는 알지 못했지만 수업과 학생들과의 토의를 통해서 캄보디아의 경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야하고 많은 고급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 ② 청아익 학살 센터 (Killing Field)

평화로운 캄보디아의 풍경과 달리 캄보디아는 가슴 아픈 역사를 갖고 있다. 캄보디아는 앙코르왕조 때 전성기를 맞다가 19세기에 프랑스의 식민지가 되었다. 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나자 캄보디아는 프랑스로부터 독립한다. 하지만 존 롤 장군은 쿠데타를 일으켜 크메르 공화국을 세우게 되고 반정부세력을 공산주의로 간주하고 탄압하였다. 이 때 폴 포트가 이끄는 캄푸치아 공산당 '크메르루즈'가 프놈펜에 입성하여 급진적 혁명을 주도하였다. 크메르루즈의 혁명은 순수한 공산주의를 건설한다는 미명하에 학살을 자행하게 되었다. 특히 농업을 기반으로 한 공산주의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을 강제노역을 시키는 물론이고 공산주의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판단되는 지식인들, 교사들, 안경 쓴 사람들, 손바닥에 굳은살이 없는 사람들, 얼굴이 하얀 사람들, 외국어를 쓰는 사람들 등 총 200만 명을 학살시켰다. 그 장소가 킬링필드이다. 워령탑을 주변으로 당시 학살을 자행한 장소들에는 번호가 붙어있었는데 오디오기기를 들으면서 그 장소들을 둘러보았다. 오디오기기에 나오는 설명을 통해 폴포트 정권의 잔인성을 느낄 수 있었다. 특히 오디오기기에 나오는 생존자들의 증언은 도저히 사람으로써는 할 수 없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특히 사람을 죽일 때에도 폴포트와 크메르루즈는 사람들을 총이 아니라 칼이나 날카로운 나무를 통해 닥치는 대로 죽이고 사람들을 쉽게 죽게 하기 위해 살충제인 DDT를 사람 몸에 뿌리기도 하였다. 이러한 잔인함은 나치의 홀로코스트를 연상시키게 하였다. 집단무덤과 나무에 걸려져 있는 수많은 팔찌, 그 당시 학살당한 사람들의 옷가지와 유골 등을 보면서 폴포트와 크메르루즈의 공산주의가 인간의 존엄을 무시한 것에 대해 원망심이 많이 들었다. 또한 전범에 대한 재판이 최근 몇 년 사이에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듣고 국제사회에서 캄보디아에서 일어난 끔찍한 사건에 대해 관심을 점차 갖게 되어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에 대해 알게 되고 이러한 일이 되풀이 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였다.

## ③ 메콩강

우리는 저녁에 메콩강에서 아름다운 야경을 구경하였다. 배에 올라탈 때 계단이 가파르게

되어있고 배가 흔들거려 무섭기도 하였지만 배 위에서 보는 메콩강은 무척이나 아름다웠다. 메콩강은 우리나라의 한강을 생각나게 하였다. 하지만 한강보다 수십 배는 아름다웠다. 우리나라 한강 주변에는 차들과 아파트들이 많이 있지만 메콩강은 조용하고 한적하였다. 특히 메콩강에서 마주 오는 유람선에서는 신나는 노래와 사람들의 즐거운 웃음소리가 메콩강의 따뜻한 바람과 함께 들려왔다.

#### 4. 둘째날 일정

##### ①코트라 방문

아침 일찍 점심을 먹고 코트라에 방문하였다. 코트라와 숙소는 매우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었다. 코트라에서는 코트라가 캄보디아에서 하는 일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먼저 코트라의 역할은 크게 3가지로 말할 수 있다. 첫째는 Global Business Platform으로써 수출을 도모하고 외국인 투자 유치를 통해 양방향의 잘 무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둘째는 대기업보다는 지사 설립이 어려운 내수 기업들에게 지사역할을 해줌으로써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것이다. 셋째는 한국 청년들의 캄보디아 창업을 지원하고 역으로 한국으로 유학 온 캄보디아 유학생들이 한국에 와서 기업을 세우고 캄보디아에 진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 해외투자의 한계를 극복하고 캄보디아 인재들의 파트너 역할을 하는 것이다. 코트라는 이러한 역할을 하면서 캄보디아와 우리나라의 무역이 보다 원활하게 진행되게 도움을 준다. 또한 캄보디아의 산업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캄보디아는 1차 산업인 농업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국가이다. 농업이 가장 많이 차지하는 이유는 열대몬순성기후의 영향으로 일 년에 3번에서 최대 5번까지 기작이 가능하며 다른 나라와 다르게 전 국토가 황토, 홍토이기 때문에 농업에서 우위를 갖출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전 세계 쌀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인디카 품종을 재배하고 있기 때문에 유리한 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농업의 유리함을 보고 우리나라도 점차 여러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등이 캄보디아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캄보디아 농업분야에 진출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하였다. 캄보디아는 우리나라와 달리 후발개발도상국으로써 막 이제 발전을 시작한 나라라고 하였다. 또한 인구의 연령이 낮지 때문에 상대적으로 생산가능인구의 평균나이가 젊다. 그렇기 때문에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나라이다. 또한 코트라에서 아주대학교와 연계되는 창업프로그램을 지원해준다는 설명을 듣게 되었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이용한다면 청년들이 창업을 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②왕궁 관람

캄보디아 왕궁을 관람하기 위해서는 먼저 복장검사를 받아야 한다. 무릎 아래까지 오는 바지를 입어야 하는 것이 규정이기 때문에 반바지를 입은 나는 다시 버스로 돌아가서 긴바지를 갈아입어야 했다. 검사를 받고 왕궁에 들어가니 금색의 건물들을 볼 수 있었다. 특히 제일 가운데에 있는 궁궐은 바닥부터가 금이라고 해서 무척이나 놀랐다. 왕궁은 캄보디아 특유의 건축양식을 잘 나타내는 건축물이라는 설명을 듣고 왕궁 건축물의 특징을 찾아보았다. 다른 서양 건축물과 다르게 캄보디아 왕궁은 지붕이 뾰족한 탑처럼 서있었고 아름다운 곡선의 문양들이 많이 볼 수 있었다. 특히 불교가 국교인 나라이기 때문에 왕궁 안에는 불교양식의 탑들도 볼 수 있었다. 캄보디아 왕궁을 둘러보다가 캄보디아는 왕이 있는 국가인데 왕

은 어디에 있는 것인지 궁금하였다. 가이드분의 설명에 따르면 캄보디아왕은 훈센총리에 의해 선출되었기 때문에 국정에 관심이 없고 뜻이 없는 왕자라고 한다. 따라서 캄보디아왕은 자주 해외로 놀러나가기 때문에 현재 궁궐에 없다고 하였다. 나는 그 설명을 듣고 캄보디아도 여느 입헌군주제처럼 총리가 군주를 견제한다는 것이 인상 깊다는 생각을 하였다.

## 5. 씨엠립으로 이동하다

우리는 두 번째날 일정을 마친 뒤 프놈펜공항으로 가서 씨엠립으로 가는 비행기를 탔다. 비행기가 아담하고 귀여웠다.

## 6. 셋째날 일정

### ① 앙코르와트

앙코르와트는 캄보디아 전성기 때인 크메르 제국 수리아 바르반 2세가 30년 동안에 거쳐 만든 사원이다. 세계 7대 불가사의에 선정되었고 세계문화유산인 만큼 매우 장엄한 사원이다. 앙코르와트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앙코르와트 입장권을 위한 사진을 찍고 툽툽을 탔다. 툽툽은 오토바이 뒤에 관광객을 태울 수 있게 개조한 교통수단으로써 툽툽을 보기만 하다가 실제로 타게 되어서 매우 신기하였다. 시원한 바람을 맞으니 툽툽을 타고 바람을 가르니 더위가 날아가는 것 같아서 매우 기분이 좋았다. 앙코르와트는 해자가 둘러싸고 있었다. 해자는 적의 침입을 막는 것 뿐 만 아니라 앙코르와트의 기반을 안정하게 하여 사원이 무너지지 않게 하는 역할을 한다. 앙코르와트를 본격적으로 구경하기 전에 우리는 코코넛을 먹었는데 달고 맛있었다. 가이드분의 설명을 듣고 앙코르와트를 자율적으로 구경하였다. 앙코르와트는 불교국가답게 많은 불교사원을 가지고 있지만 불교를 국교로 세우기 전에는 힌두교를 믿는 나라였다고 한다. 앙코르와트는 힌두교의 라마왕자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라마는 비슈누 신의 7번째 화신으로 라마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싯타라는 아내가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라마가 자신에게 결혼을 요구한 짝사랑녀의 코를 베어버리자 짝사랑녀는 오빠인 악마 라바나에게 그 사실을 고하면서 라마의 아내인 싯타의 미모를 알려준다. 라바나는 싯타를 납치하게 되고 라마는 싯타를 찾기 위해 10년이라는 세월을 보내게 된다. 라마는 원숭이 장군의 도움을 받아 싯타를 되찾게 된다. 이 이야기는 전부 앙코르와트의 벽화에 새겨져 있다. 앙코르와트는 석조 건물로써 모든 벽에 문양과 신의 모습들이 새겨져 있다. 그 당시에는 기계가 있었던 것도 아니어서 사람의 손으로 문양을 일일이 다 새겨놓았다고 하였다. 그 아름다움이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앙코르와트를 건물을 올라가기 위해 경사가 70도 정도인 가파른 계단을 타고 올라가야한다. 계단을 타고 올라갔을 때 내 눈에 먼저 들어온 건 캄보디아의 푸른 하늘이었다. 원색에 가까운 하늘과 숲을 바라보니 그 동안 여러 가지 일로 답답했던 내 마음이 뚫리는 것 같았다.

## 7. 한국으로 돌아가다

우리는 씨엠립에서 모든 일정을 마치고 인천공항으로 가는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돌아갔다.

### III. 결론

대학생이 되어서 첫 해외체험으로 캄보디아를 가게 되었다. 캄보디아를 다녀오면서 무엇을 얻었냐고 물어본다면 나는 세 가지를 얻었다고 말할 것이다. 첫째는 많은 사람들과의 의사소통하는 용기이다. 자유롭게 다니는 여행이 아니라 많은 현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해외체험을 하면서 캄보디아 사람들과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다. 하지만 처음에는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러다 UP대학 수업을 들으면서 짧았지만 캄보디아 학생들과 토의하면서 내 생각을 전달하려고 노력하고 나서 캄보디아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해보려고 하는 용기가 생기게 되었다. 길을 가다가 어린아이들 무리를 보았는데 내 셀카봉을 신기한 아이에게 같이 사진 찍자고도 얘기해보고 식당 웨이터에게 이 음식의 이름이 무엇인지에 대해 자신 있게 물어볼 수 있었다. 영어 실력은 좋지 않았지만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내 이야기를 해보려는 노력을 통해 나름 의사소통을 하는 용기를 얻을 수 있었던 것 같다. 둘째는 나의 꿈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이다. 대학생이 되어서 진로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살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도 많이 했었다. 하지만 평범한 삶을 사시다가 캄보디아에 와서 자신이 어렸을 때부터 해보고 싶었던 일들도 하게 됐다는 코트라 무역관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도 어느 일을 하던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아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다. 셋째는 우정이다. 이번 해외체험을 하면서 다른 과 학생들과 조를 이루어 다니거나 다른 조 학생들과도 같이 이곳저곳을 둘러보면서 많이 친해질 수 있었다. 재밌게 사진도 찍고 음식도 먹고 같이 지내면서 정말 정이 많이 들었던 것 같다.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있으면 또 지원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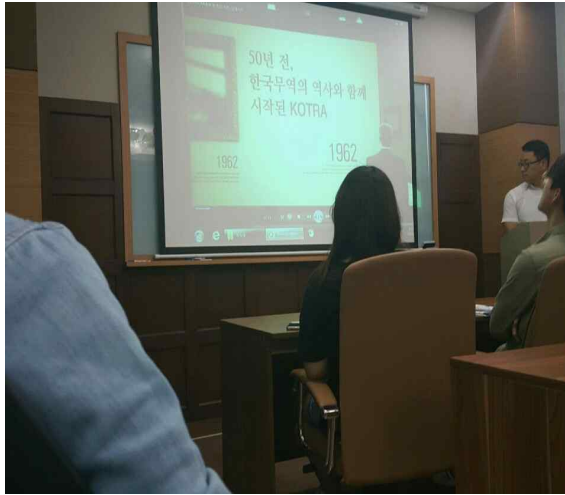
↑ 메콩강이 보이는 아침 ↓ 아침식사



↑ 시내풍경 ↓ Puthisastra 대학 방문







코트라 캄보디아 무역관



왕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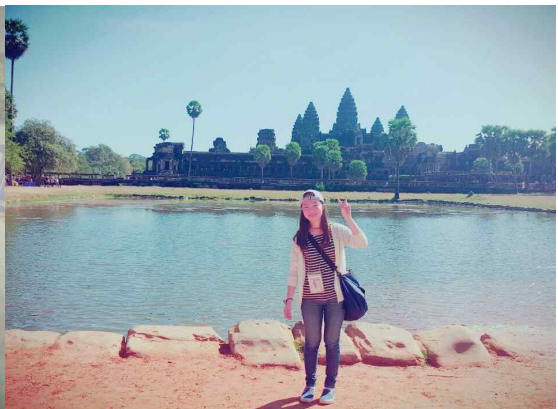
메콩강 유람선



킬링필드



캄보디아 코코넛



양코르와트



양코르와트 계단 위에서



양코르와트 위에서 바라본 풍경



특특



캄보디아 아이들과 함께